

보 도 설 명 자 료

('22. 11. 1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은 충분한 검증을 거쳐 과학적으로 도출
되어야 하는 사항이며, 관련 연구용역은 연말까지 진행예정
(11.16일자 한국일보 「원전 정책대로면 고준위 방폐물 포화시점 이르면
2027년말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보도내용

- 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에서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전망을 당초보다 4년가량 앞당겨진 2027년 말로 추정했고,
 - 정부는 포화시점을 늦추는 방향으로 재산정하도록 요구함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- ☐ 정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“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전망 연구용역”(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)을 금년 12월말 완료로 목표로 진행중
- ☐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은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전문가의 충분한 검증을 거쳐 도출 중이며, 국민 신뢰의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추정방법 및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
 - 특정 방향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결과의 재산정을 요구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과 다름

※ 문의 : 원전환경과 박태현 과장(044-203-5340)/변재택 사무관(5341)